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강북신문 6면



강북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이 13일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제8대 강북구의회, 국립4.19민주 묘지 참배

13일, 개원식 대신 “현장에서 일로써 보답하겠다” 의지 반영

제8대 임기를 시작한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14명의 의원들이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30분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립4.19민주묘지 참배는 강북구의회의 개원식을 대신하여 이뤄졌다. 당초 이날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개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허례허식을 버리고 현장에서 일로써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강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4.19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여 구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의원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되새겼다.

4.19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이백균 의장은 “제8대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만을 위한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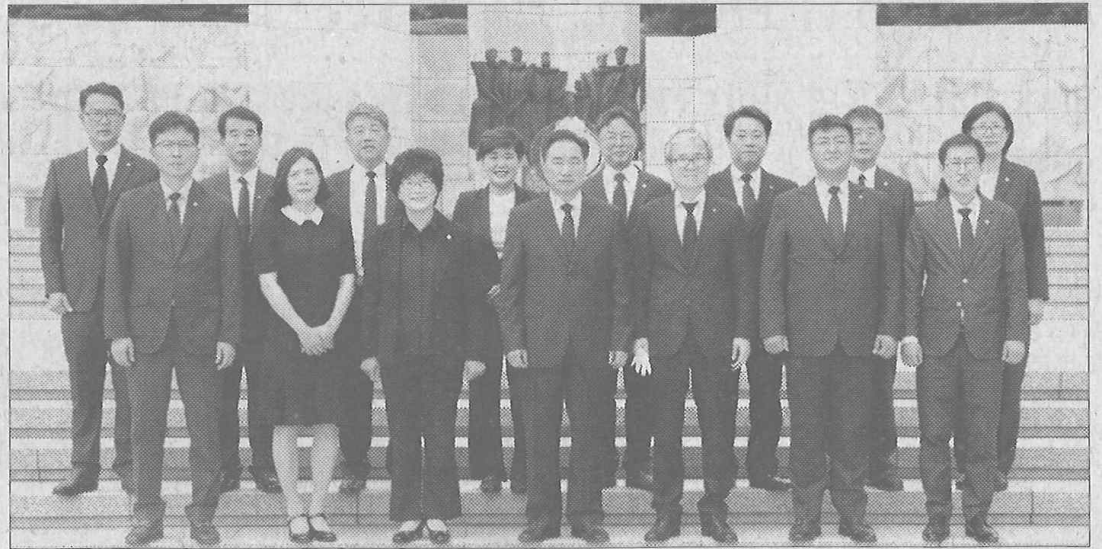
강북구의회, 개원식 대신 국립4.19민주 묘지 참배

허례허식 지양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7월 13일 11시 30분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립4.19민주묘지 참배는 강북구의회 개원식을 대신하여 이뤄졌다. 당초 이날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개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허례허식을 버리고 현장에서 일로써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4.19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구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의원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신념과 의지



▲ 제8대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함께한 모습.

를 되새겼다.

4.19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이백균 의장은 “제8대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허례허식

을 지양하고,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만을 위한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제8대 강북구의회, 4·19묘역 참배로 개원식 대체



▲ 지난 13일 구의회 개원식 대신 4.19 묘역 참배를 한 강북구의회 의원들.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3일 오전 강북구 우이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개원식을 대체했다. 당초 이날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개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을 찾아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자

는 구의원들의 뜻에 따라 일정을 바꿨다.

구의원들은 4.19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여 구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의원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되새겼다. 이백균 구의장은 “제8대 강북구의

회는 앞으로도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만을 위한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편집인 장용석

bukbu3000@naver.com



제8대 강북구의회, 국립4.19민주 묘지 참배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7월 13일 11시 30분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립4.19민주묘지 참배는 강북구의회의 개원식을 대신하여 이뤄졌다.

당초 이날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개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허례허식을 버리고 현장에서 일로써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4.19 민주 영령의 숭

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여 구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의원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되새겼다. 4.19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이백균 의장은 “제8대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만을 위한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8대 강북구의회, ‘개원식 대신 국립4.19민주 묘지 참배’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3일 오전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립 4.19민주묘지 참배는 강북구의회의 개원식을 대신해 이뤄졌다. 당초 이날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개원식을 진행

할 계획이었지만 허례허식을 버리고 현장에서 일로써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4.19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해 구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의원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되새겼다.

4.19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이백균 의장은 “제8대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구민만을 위한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영일 기자